

전남 ‘RE100 국가산단’ 조성 탄력받나

대통령실 특별법 제정 등 공식화…“규제 제로 검토”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1번지 전남 ‘최적지’

대통령실이 특별법 제정 등 ‘RE100(재생에너지 100%) 산업단지’ 조성을 공식화하면서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1번지인 전남도에 입지가 들어설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0일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후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RE100 산단 추진방안을 보고했다”고 말했다.

‘RE100 산단’에 위치한 기업은 풍력이

나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만 100% 사용해 기업활동을 하도록 하겠다는 게 대통령실 구상이다.

김 정책실장은 “특히 해당 보고를 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RE100 산단의 경우) ‘규제 제로’ 지역이 되도록 검토해달라. 교육 정주 관련 지원도 더 획기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산단 기업에 대한 파격적인 전기료 할인 혜택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들을 중심으로 테스크포스(TF)를 구성, 최우선 정책과제로 특별법 제정과 산단 조성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김 실장은 전했다.

김 실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서남권을 비롯해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이 있음에도 전력수요는 수도권에 집중되는 등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가 크다. 이로 인해 국가적 비효율이 초래된다”며 RE100 산단 조성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전남도가 정부에 줄기차기 지원을 요청한 RE100 국가산단의 전남 서남권 조성에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전남도는 해남 솔라시도 기업도시에 ‘AI 슈퍼클러스터 허브(데이터센터 3GW)’를 구축하고, 데이터센터 RE100 특화 산단을 조성해 대규모 ‘AI 에너지신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목포 신항, 영암 대불산단, 해남 화원산단, 영암 기업도시 등에는 글로벌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아시아 태평양 해상풍력 허브’로 만들 예정이다.

또 국립 해상풍력 연구소, 지원 부두, 배후 단지 등과 함께 기자재 특화단지까지 들어서 해상풍력지원선 국산화에 나선다는 전남도의 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커졌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강기정 시장이 10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를 찾아 관람석 교체작업을 체험해 보며 근로자들의 폭염대응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시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관람석 교체 ‘속도’

휴식기 60% 목표…강기정 시장, 근로자 폭염 보호 대책 살피

광주시가 프로야구 올스타 휴식기를 맞아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의 관람석 정비 작업에 속도를 낸다. 휴경기인 7월 16일까지 휴식기 동안 공정률을 6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10일 관람석 교체 작업이 진행 중인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를 찾아 정비 현장을 점검하고 야외근로자들을 격려했다.

강 시장은 폭염에 고생하는 야외근로자들의 근무 환경을 살피며 휴식·폭염 예방 물품 비치 여부, 50분 작업 10분 휴식, 온

열질환 징후 발현 시 즉각 작업 중지 등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했다.

또 프로야구 기아타이거즈 팬들의 관심인 챔피언스필드 관람석 좌판, 등판, 컵홀더 등 교체 작업 현장을 직접 살폈다.

광주시는 사업비 6억여원을 투입해 변색과 파손 등 노후화된 관람석 1만6294석을 전면 교체하고 있다.

안전성과 편의성 향상을 위해 기존 관람석보다 좌판과 등판, 컵홀더 크기를 키우고, 디자인과 색상은 기존과 같지만 새 것으로 산뜻하게 교체한다.

광주시는 특히 프로야구 올스타 휴식기 동안 교체 작업에 속도를 내 공정률 60.8%(9907석)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기상 등 특별한 변동 사항이 없다면 8월 말까지 관람석 교체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강기정 시장은 “오랜시간 시민들의 회로에러를 함께하고 있는 KIA타이거즈를 응원하기 위해 광주시가 나섰다. 관람석 전면 교체로 더욱 새로워진 챔피언스필드의 기운을 이어받아 KIA타이거즈가 승리의 길로 나아가길 바란다”며 “광주시는 시민들이 더 편한 환경에서 경기를 보며 환호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안전하게 정비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수도권·비수도권 상생 전략 설계도 만들 것”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취임
“5극3특 전략 세부방안 완성”

김경수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10일 취임하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하며 함께 성장하는 전략의 설계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이재명 정부의 새로운 균형성장 전략이 바로 ‘5극 3특’”이라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설계도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5극 3특” 전략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개 초광역권별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해 광역급행철도를 건설하고, 제주·강원·전북 등 3개 특별자치도의 자치 권한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김 위원장은 “5대 초광역권과 3대 특별자치도를 기반으로 산업과 일자리, 교육과 의료, 주거를 비롯한 경제권과 생활권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며 “국정기획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해 구체적인 방향을



김경수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세종시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세우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관의 긴밀한 협력과 논의를 통해 5극 3특 전략 실현을 위한 세부적인 방안을 만들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또 다른 핵심 과제로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들었다.

세종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건립이 차질 없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행정수도 이전과 완성을 위한 법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행정수도 이전은 수도권

의 새로운 비전과 전략 수립과 함께 동시에 추진돼야 하는 어려운 과제”라면서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지방시대 위원회가 앞장서서 성공시켜야 하는 국가 균형성장의 상징과 같은 사업”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이 해양수도 건설과 북극항로 개척이라는 대한민국 미래와 직결돼 꼭 필요하며 세종시민들의 이해를 구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구례 전통 한지부채 ‘죽호바람’ 디즈니와 손잡고 세계 흔들었다

도·관광재단, 관광두레사업

디즈니 캐릭터 점목 부채 제작

한국 전통공예 ‘세계화 주역’



구례에서 3대째 부채를 만들고 있는 전통공예 브랜드 ‘죽호바람’이 세계적인 콘텐츠 기업 ‘디즈니’와 협업하며 한국 전통 공예의 세계화를 이끌고 있다.

10일 전남관광재단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사업인 관광두레지역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죽호바람’을 주민사업체로 선정, 최근 세계 국가문화유산산업전 금상을 수상하며 예술성과 전통가치를 예술·문화적으로도 인정받았다.

‘죽호바람’은 전남도와 전남관광재단이 추진하는 관광두레지역협력사업을 통해 발굴된 예술인 기반 주민사업체로, 수작업 장인정신을 기반으로 전통부채공예의 맥을 잇는 로컬 공예 기업이다.

이들은 단순한 기념품이 아닌, 전통 문화의 스토리와 철학을 담은 작품을 만들어내며 세계와 소통하고 있다.

죽호바람의 부채는 전통 방식 그대로 대나무를 경직하며 탄력성이 강한 우수한 대나무를 베고, 삶고, 자르고, 쪼개는 전통방식으로 만든다. 부

채살 위에 한지를 입히고, 한국적인 문양과 꽃, 한복 등 그림을 입혔다.

모든 제작 공정은 장인의 손끝에서 이뤄지며, 전통의 맥을 지켜내는 수고로움과 철학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러한 장인정신과 예술성이 세계적으로 주목받으며, 글로벌 에나메이션 그룹 디즈니로부터 직접 협업 제안을 받게 됐다.

월트디즈니코리아는 직접 ‘죽호바람’에 협업을 제안, 디즈니 캐릭터가 담긴 한지부채 제작 프로젝트를 성사했다. 이는 라이선스 활용이 아닌, 세계적인 문화기업이 먼저 주목한 전통 문화의 콘텐츠화 성공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MZ세대에게도 전통문화에 대한 새로운 감성을 불러일으키며 ‘전통 공예의 재발견’이라는 호평을 받고 있다.

박정렬 기자 holbul@

담장, 디자인에 취하라!

— 벽돌담의 품격을 더하겠습니다

- 자연석같은 전통 시공식문양 '풍경벽'을
- 세계최초 한글조합식 문자블럭 '세종벽'을
- 조적, 물타 등 별도의 접착제 없이 셀프시공이 가능한 '키어블럭'
- 담장 조성 각종 건축인테리어블럭

담장은 예술이다

신제품

키어블럭(조합식조성용) PCT로제특허출원

풍경벽돌배치형 담장

벤스형 담장

한식기억형 담장

채스블럭 담장

키어블럭

NAVER 뉴정원산업

본사공장 전남 완순군 이양면 약포로862(품평리 629)
Tel. 061)373-9566~7 Homepage. www.jtbl.co.kr